

농축산물 산불 피해상황 정밀조사 및 수급영향 최소화, 가공식품 원료육 등 1.4만톤 할당관세 5월 1일 시행

- 산불 피해상황 정밀조사 진행중, 조사결과 토대로 수급안정 조치 적기 마련
-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1만톤, 계란 가공품 4천톤 할당관세 5월 1일 시행
- 식품 물가안정 위해 담합·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가격 인상 철저히 감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11(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해 ①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②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 기재부(주재), 농식품부, 해수부, 행안부, 산업부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영향 최소화,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3.27일~4.15일간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하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급안정 조치를 적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이 발생한 안동, 청송 등이 사과주산지인 만큼, 사과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영농 기술지원,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국민장바구니 부담이 완화되도록 농산물 할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 등 민생밀접분야 물가안정을 위해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1만톤과 계란 가공품 4천톤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를 5월 1일 시행하고, 담합이나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가격 인상이 없도록 공정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임혜영 (044-215-2770) 연정은 (jey0903@korea.kr)
	경제정책국 물가구조팀	책임자 담당자	팀 장 사무관	최정빈 (044-215-2931) 가순봉 (07mmuser@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서기관	신우식 (044-201-2211) 남현중 (skaguswnd@mail.go.kr)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서기관	배민식 (044-201-2681) 김성만 (bomipapa@mail.go.kr)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서기관	정기원 (044-200-5440) 김수정 (sjcrystal@korea.kr)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책임자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이승규 (044-200-4300) 박성훈 (sunghoon92@korea.kr)

